

'시민 불편 제로 프로젝트' 추진

전주시, 안전·가로수·하천·청소 등 시민 생활 밀접 4대 분야 도심 정비 나서

전주시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생활 속 불편을 찾아 없애기로 했다.

시는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에서 불편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오는 2026년까지 총 86억 원을 투입해 안전과 가로수, 하천, 청소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 도심 정비사업인 '제로(ZERO)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프로젝트는 범죄 위험 요소를 원천 차단하고, 가로수·하천변·청소 등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최소화하는 것이 핵심으로, 시는 긴 추석 연휴 기간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에 대비해 9월 한 달간 집중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시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시민위험 제로(zero)' 분야의 경우 방범용 CCTV를 재점검하고, 천변과 등산·산책로 등 안전 사각지대를 해소

키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방범용 CCTV 4200대를 24시간 감시·운용 중인 전주시 통합관계센터의 운영 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관할 경찰서와 함께 합동점검반을 편성해 추석 연휴 전까지 취약지 118개소를 중심으로 작동 불량·적치물 정비·녹화 사각지대 확인 등 방범용 CCTV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특히 시는 야간시간대 시민 야외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전주천과 삼천 약 13km 구간을 범외방과 하천수위 관제가 가능한 다목적 CCTV 17대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다. 또, 건지산과 황방산 등 주요 등산로에 대해서도 CCTV 추가 설치를 위한 전수조사도 진행한다.

나아가 관제자가 자칫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 위험 행동을 AI가 감지하는 스마트 지능형 CCTV를 현재 880대에서 향후 연간 200대씩 확

충해 나갈 계획이다.

선선한 가을철을 맞아 시민들이 즐겨 찾는 도심 속 천변도 새롭게 단장된다. 삼천과 전주천 20km 구간을 중심으로 추석 전 풀 베기를 끝내고, LED등(燈)과 투광기를 설치하는 등 밝은 천변길을 조성할 계획이다.

끝으로 시는 권역별 수거제로 전환된 청소 분야의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추석 대비 취약지 정비 및 일제 청소 등을 추진하고, 일몰 후(해가 진 후) 쓰레기 배출제 추진 및 추석 연휴 기간 중 기동처리반 운영 등 세심히 대비하기로 했다.

최라기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일상에서 불편함 없이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추석 전 행정역량을 집중해 시민 불편을 줄여나가기로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맛배달' 누적 매출액 70억원 돌파

9월 이용 소비자 777명에게 1만원 할인쿠폰 지급 이벤트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이 누적 매출액 70억 원 돌파를 기념해 고객 777명에게 추가 할인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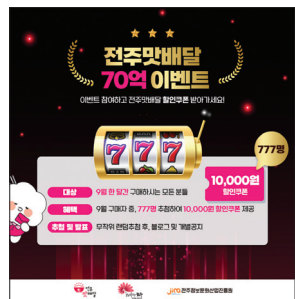
전주시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원장 이영로)은 지난해 2월 말 출시한 전주시 공공배달앱 '전주맛배달'이 9월 1주차 주말을 기점으로 누적매출액 70억 원을 돌파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전주맛배달에 쿠폰 다운로드(발급) 후 선착순 사용(결제) 시 소진되는 할인쿠폰을 주간·월간 단위로 발행, 공공배달앱 이용 시 보다 많은 전주시민이 할인 혜택을 적용받아 착한 소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다.

전주맛배달은 이번 누적매출액 70억 원 돌파를 기념해 기존에 제공해온 할인 혜택과 더불어 9월 한 달간 전주맛배달을 이용한 소비자 중 777명에게 1만 원의 할인쿠폰을 지급하는 특별 이벤트도 진행할 계획이다.

현재 전주맛배달 정기배송 구독서비스(전주구독)에서는 생수와 쌀, 커피처럼 일상생활에서 자주 소비되는 먹거리에서부터 전주구독 할인 혜택을 통해 현장보다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헤어 정기권과 정가공인 입장권, 보컬 레슨 등을 구매할 수 있다.



심규분 전주시 경제산업국장은 "신규 오픈한 전주맛배달 정기배송 구독서비스(전주구독)를 통해 더욱 견고한 지역 상생의 경제 구조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주시 노송동 전횡왕궁지구 쾌적해진다

국토부 2024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 지역 선정

30년 이상된 노후주택과 좁은 골목길이 밀집해있지만 학교와 맞닿아 있다는 이유로 등으로 그동안 개발에서 소외돼 온 전주시 노송동 전횡왕궁지구가 살기 좋은 마을로 거듭나게 됐다.

전주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2024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새마을 사업)' 대상 지역에 전횡왕궁지구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시와 전주시도시재생지원센터가 지역주민들의 염원을 바탕으로 함께 이뤄낸 성과로, 시가 새마을에 선정된 것은 팔복동 주천마을과 풍남동 승안마을, 진북동 도토리골, 완산구 남노송동, 완산구 동안산동, 완산구 낙수정마을에 이어 이번이 7번째이다.

전횡왕궁지구는 그간 구도심 개발에서 소외되면서 고립된 주거지로,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전체의 약 91%를 차지하고 기초생활수급자가 전체 거주자의 17%에 달하는 등 주거환경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이다.

특히, 기초생활 인프라가 열악한 이곳은 공모 신청 당시 하수도 보급구비율이 전체의 9.4%에 불과해 여름철 약취 및 벌레들로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마을 곳곳에 공·폐기가 증가하는 등 마을이 점차 활기를 잃어왔다.

이에 시는 이 사업을 통해 전횡왕궁지구 일원에 오는 2028년까지 국비 19억 원 등 총 27억 원을 투입해 노후주택 정비사업 등 마을 여건에 맞는 다양한 주민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시는 슬레이트 지붕개량 △노후 집수리 △재해 예방 및 도

로 정비 등 생활인프라 확충에 집중하고, 돌봄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휴먼케어 사업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시는 마을 골목길을 중심으로 보안등과 방범용 CCTV, 간이 소방시설 등을 설치해 주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고, 하수관로 정비사업과 서로돌봄 플랫폼 조성사업 등 인근 사업들과 연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김문기 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낙후된 지역을 대상으로 지속 새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침체된 마을이 주민공동체의 활동을 통해 활기를 되찾는 등 점차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면서 "올해 선정된 전횡왕궁지구 역시 주민과 함께하는 새마을사업 추진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도록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위반... 전북 선거사범 221명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전북에서의 선거사범이 221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3·8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한 사건은 총 85건에

달한다.

수사대상에 오른 인물들만 하더라도 221명이다. 경찰은 이 중 7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86명은 불구속 조사를 송치했다.

유형별로는 금품 수수가 174명(78.7%)

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유포 21명(9.5%), 선거운동방법 위반 10명(4.5%) 순이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철저히 수사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뉴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9일 중앙실림광장에서 전주시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공동사업으로 기관 연합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17개 기관과 청소년 위한 축제 진행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정혜선)는 지난 9일 중앙실림광장에서 전주시청소년복지실무위원회 공동사업으로 기관 연합아웃리치를 진행했다.

올해로 11회째 맞는 연합아웃리치는 '사랑의 띠로 하나되어 전주시청소년을 품다'라는 주제로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주시 청소년들이 건강한 동아리 활동을 통해 즐거운 취미 힐링을 할 수 있도록 작은 축제의 장을 열어 축제를 즐기면서 여러 청소년 기관을 가까이에서 탐방하고 체험해볼 수 있

도록 기획했다.

행사에서는 청소년 동아리 4팀의 흥겨운 동아리 발표를 시작으로, 17개 기관 90여명이 각 기관홍보 및 지원사항 안내, 다양한 체험거리 등을 통해 향기 청소년 발굴 및 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의 시간이 마련됐다. 또 행사에 참여한 청소년들과 학교폭력의 위험성 및 청소년 안전망을 알리기 위해 길거리 캠페인도 펼쳐졌다.

함께 사랑의 띠가 되어준 기관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성매매피해아동정

소년 전북지원센터 '나우', 전라북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전라북도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17곳이다.

전주시청소년복지실무위원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랜선으로 진행된 연합아웃리치가 다시금 현장에서 진행되니 더욱 생동감있고 청소년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어 벅했다"며 "11년간 변함없이 전주시의 청소년 관련 많은 기관들이 함께 참여해주셔서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김옥기 기자

전북의 역사·문화 유산

일제강점기 수탈의 상징

구 군산세관 본관

국가지정 사적 제545호인 구 군산세관 본관은 1908년 단층으로 지은 건물이다. 이 건물은 군산항을 통해 드나들던 물품의 관세를 거두었던 곳이다.

1899년 군산항을 개방한 이후 인천세관 관할에 있던 군산세관은 1906년 인천세관 군산지사를 설립한 이후 이 건물을 완공했다.

붉은 벽돌을 사용해 건물의 외관을 꾸미고 목조를 사용, 내부를 장식했으며, 또한 슬레이트와 동판으로 지붕을 만들고 그 위에 세 개의 뾰족한 탑을 세웠다.

구 군산세관 본관은 건축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곳일 뿐만 아니라 곡창지대인 호남지방의 곡물을 수탈하는 역사적인 현상이었다는 점에서 후대에 교훈을 주는 곳이다.

전주매일 캠페인